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0면	"농업·농촌 행복한 미래 100년 향해 달려나갈 것"	1
江原日報	27면	미래 농업·농촌생활 이끄는 여성리더로 발돋움 다짐	1
강원도민일보	10면	"경제문화도시 원주 도약 어르신 큰 역할"	2
江原日報	17면	원주 노인의날 기념식 ... 30명 표창 수여	2
江原日報	01면	“도전·혁신 통해 특별자치도시대 경제 대도약”	3
江原日報	07면	건설혁신상	3
江原日報	03면	"전세계가 AI기술 전쟁 돌입 ... 강원 스마트시티 구축 나설 ...	4
江原日報	27면	도의회 교육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5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교육위 전국체육대회 도 선수단 격려	5
스포츠서울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5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산악사고 40% 가을 행락철 집중 "나홀로 산행 자제"	6
춘천MBC	온라인	산악사고 단풍철에 집중.. 안전수칙 지켜야	6
江原日報	04면	단풍에 취해 ‘삐끗’ 가을 산악사고 속출	7
江原日報	02면	道 지방시대위 2차 회의 개최	8
강원도민일보	02면	황학수 도지방시대위원장 "윤 정부 지방시대 강원이 완성"	8
강원도민일보	20면	원제용 도의원 국무총리 표창	9
江原日報	27면	원제용 도의원, 국무총리 표창	9
江原日報	21면	영월 노인의 날 기념식	9
강원도민일보	21면	전국체전 강원선수단 결단식 '선전 기원' 목표 종합 9위	10
江原日報	23면	“강원체육인 기량 마음껏 뽐내길”	11
강원도민일보	17면	철원군·서귀포시, 한탄강서 평화통일 기원	12
江原日報	22면	“백두·한라 기운 모아 통일 염원”	12
江原日報	19면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 개소	13
강원도민일보	15면	인제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 준공	13
CBS		'특혜 의혹' 속초 대관람차 '위법행위' 적발...전임 시장 수...	14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엄기호(철원) 도의원	16
江原日報	27면	[동정] 엄기호 강원도의원(철원)	16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6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유순옥(비례) 도의원	16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시성(위 왼쪽)·강정호(위 오른쪽)·원미희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17
江原日報	27면	[동정] 박대현 강원도의원(화천)	17
江原日報	27면	[동정] 심오섭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강릉)	17
江原日報	04면	신 교육감 지지 단체에 민간보조금 줬다 뒤늦게 환수	18
江原日報	04면	도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오늘 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18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내 대학생 해마다 수천명씩 떠난다	19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도 '5년간 25조원 투입' 초광역권 발전 전략 구축	20
江原日報	05면	플라이강원에 20억원 지급 양양군 하루만에 속전속결	21
江原日報	05면	춘천 '마리나 사업' 허위서류로 선정 정황 ... 수사 확대	22
강원도민일보	04면	양양 남대천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본격화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영동지역 인구 유출 심상치 않다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언제까지 에너지 공급처 머물텐가	24
江原日報	25면	[사설] 강원자치도의 경제 밝히는 '강원이코노믹서밋'	25
江原日報	25면	[사설]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6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20

“농업·농촌 행복한 미래 100년 향해 달려나갈 것”

한국생활개선 도 대회 원주 개최
유공자 표창·어울림 한마당 등
발전방안 모색·회원 간 결속 다져

제27회 한국생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대회가 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생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회(회장 김양금)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미래 농업·농촌 100! WITH 생활개선회’란 주제로, 회원간 결속을 다지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송기현(원주)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태훈 원주 부시장 등 도내 기관단체



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회장 김양금)는 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제27회 한국생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대회를 열어 회원간 결속을 다지며 조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회원 24명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의장, 한국생활개선중앙회장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강현옥 연합회장은 “힘든 농업 환경 속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변화를 추구해 왔듯이 앞으로 100년을 향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달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원주에서도 대회가 열린 것에 축하한다”며 “인구소멸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농촌이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러운 시기도 많았지만 지금의 농촌이 있기까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부대 행사로 회원 어울림 마당, 농특산물을 활용한 디지털 개발 경진대회, 세계화를 위해 개발한 강원 음식을 선보였다. 농작업 안전장비 전시관, 직물공예품 전시관, 치유농업 병뚜껑 업사이클링 체험, 원주 대표 디저트 판매 등도 마련, 인기를 끌었다. 김양금 회장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생활개선회원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행복한 미래 농업·농촌을 향해 모두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江原日報

2023 10 06 ()

27

미래 농업·농촌생활 이끄는 여성리더로 발돋움 다짐

제27회 한국생활개선 도대회
1천여명 회원 참석 화합 다져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강원세계산립엑스포 성공 개최에 앞장서고 미래 농업·농촌 생활을 이끌어갈 여성리더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다.

제27회 한국생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대회가 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미래 농업·농촌 100! WITH 생활개선회’를 주제로 열렸다. (사)한국생활개선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양금)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지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대회식에서는 비전 선포, 강원음식 세계화 추진 경과 발표, 표창 및 감사



◇제27회 한국생활개선 강원특별자치도대회가 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전국 시·도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패 시상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잉여 농특산물을 활용한 디지털 개발 경진, 세계화를 위해 개발된 28종의 강원 음식 전시를 비롯 우수 농가공품 및 원주 대표 디저트 판매, 농작업 안전장비 전시, 직물공예품 전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시, 치유농업 및 근

골격계 질환 진단 체험 등이 다채롭게 운영됐다.

행사에는 송기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부의장, 김일용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김형숙 도농

업인단체총연합회장, 김영배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임상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김태훈 원주부시장, (사)한국생활개선회 강현옥 중앙연합회장과 전국 시·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양금 회장은 “미래농촌의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회원의 날을 즐겨달라”며 “도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농촌이 유지되는 것은 여성지도자덕”이라며 “농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원주부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농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생활개선회에 존경을 보낸다”고 했다. 원주=김설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0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5일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기념식, 유공자 포상 수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경제문화도시 원주 도약 어르신 큰 역할”

제 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5일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열렸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회장 유종우)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태훈 부시장을 비롯, 25개 읍면동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영구 개운 경로당회장 등 13명이 시장 표창, 전순오 귀래1리 경로당 회장 등 3명이 시의장 표창, 김영숙 이지더원 1차아파트 사무장 등 14명이 대한노인회 시지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유종우 회장은 “원주가 군사도시에서 경제문화

도시로 변모하는데 큰 역할을 한 주인공이 어르신들이다”라며 “자부심을 갖고 젊은 이들에게 숭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의 모범이 되자”고 강조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어르신이 존경 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축하했다. 권혜민

江原日報

2023 10 06 ()

17

원주 노인의날 기념식 ... 30명 표창 수여

【원주】‘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5일 원주시청 백운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최영구, 김진국, 윤인숙, 김병하 등 13명이 원주시장 표창을, 전순오, 조윤만, 이장희 등 3명이 원주시의회 의장 표창, 김영숙,

홍귀희, 원건식 등 14명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유종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장을 비롯해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이재용 원주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박윤미 도의원,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규기자

江原日報

2023 10 06 ()

01

“도전·혁신 통해 특별자치도시대 경제 대도약”

강원이코노믹서밋 2023

강원경제인 300여명 한자리
새 발전 전략 모색 의지 다져
부문별 강원경제인대상 시상

코로나 엔데믹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 경제인들이 강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 5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강원이코노믹서밋 2023’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경제인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소상공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혁신과 도약 의지를 다져 ‘강원이코노믹서밋’이 명실공히 도내 최대·최고 경제인 축제임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7면

2023 강원경제인대상 대상 격인 일자리창출상은 원주 나노인텍(대표:박영식)이 수상했다. 전기차 배터리팩 등을 개발하는 나노인텍은 매년 평균 38%의 고용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창업·연구개발상은 황성 에스제이테크(대표:유창근)와 춘천 ㈜테메디(대표:이레나)가 선정됐다. 에스제이테크는 폴트 카트용 배터리



2023 강원경제인대상 수상자들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강원이코노믹서밋 2023’ 행사가 5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경제미래전’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2023 강원경제인대상 수상자들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승준 정선군수, 이삼걸 강원랜드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장 개척과 다양한 이모빌리티를 개발해 북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테메디는 치과용 의료기기 국산화는 물론 해외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ESG경영상은 황성 (주)서울에프엔비(대표:오덕근)와 정선 (주)하이원베이커리(대표:김장완)가 뽑혔다. (주)서울에프엔비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인자를 지속 관리·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하이원베이커리는 사회공헌

형 일자리를 발굴해 마을 경관 개선, 주민 및 참여자 만족도 향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건설혁신상은 원주 동진건설(대표:정동기)이 선정됐다. 동진건설은 30여년간 지역에서 사랑받는 ‘시공 베테랑’ 회사다. 특별상은 흥천 (주)샌드로블록(대표:이상미)과 (주)크린산업(대표:이미옥)이 영예를 안았다. (주)샌드로블록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친환경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과 사회공익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주)크린산업

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생분해성 수지 제품, 포장재 등 우수한 품질의 비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경영 평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일자리 창출 등의 지표에서 높은 역량을 발휘한 우수 기업들이 선정돼 강원경제 기반이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진태 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전과 혁신의 기업이 정신을 발휘해 준

강원경제인들이 있었기에 7월 강원 사상 최초 수출 3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가 가능했다”며 “강원자치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제인들의 아낌 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시상식이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창수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의 격려사와 대화사도 이어졌다.

시상식에 앞서 유응준 케이투스 코리아 대표가 기초 강연을 맡아 AI (인공지능)를 통한 산업 혁신에 대해 설명했고, 강원랜드는 청년창업기업 폐광지역 이전 지원사업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인기가수 임병수씨와 정유경씨가 잇따라 콘서트를 갖고 경제인들에게 희망과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 서밋은 강원일보사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강원랜드, 강원자치도, 정선군 등이 후원했다. 정선=이규호기자 leekh@

江原日報

2023 10 06 ()

07



건설혁신상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왼쪽)이 건설혁신상을 수상한 정동기 동진건설(주) 대표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3 10 06 ()

江原日報

03

“전세계가 AI기술 전쟁 돌입 ... 강원 스마트시티 구축 나설 때”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강원이코노믹서밋 2023' 행사가 5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승준 정선군수,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이호성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장을 비롯한 도내 경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시대 경제미래비전'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정선=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강원이코노믹서밋 2023'의 기조강연을 맡은 유웅준 케이투스 코리아 대표는 "이미 AI(인공지능)는 모든 산업에 침투해 적용되고 있다. 변화에 대처가 늦으면 회사의 위기는 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날 'AI & ChatGPT, 이 시대의 Game Changer'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생성형 AI 활용과 전망,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미칠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AI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한 유웅준 대표는 "1950~1970년대에는 사람 또는 동물 두뇌의 신경망에 착안해 구현된 컴퓨팅 시스템인 '인공신경망'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1980~2010년대에는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를 제공해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딥러닝' 기술이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컴퓨터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딥러닝'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물체 감지부터 위치와 움직임 인식, 장면 이해 등 이미지 분야는 물론 음성 인식과 번역 등 언어 응용, 보행자 감지 및 교통신호, 표지

유웅준 케이투스 코리아 대표 기조강연

“이제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세계시장 선점”

엔비디아 재직 경험 살려 자치도 미래성장 비전 제시

판 인식 등 자동차 응용까지 이제는 모든 산업에 걸쳐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및 관련 장치기업인 엔비디아에 재직했던 유 대표는 "엔비디아는 초반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들었는데 회사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핵심적인 이유는 AI 때문"이라며 "이제는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잡고 AI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에 성공했으며 내년부터 상용화된다고 말

했다. 유 대표는 "이제는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라며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여러 도시가 스마트 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앞으로 반도체, 의료, 가전, 자동차, 로봇 등 많은 산업 분

아가 AI 기술 융합으로 더 고도화되는 만큼 앞으로 AI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웅준 케이투스 코리아 대표는 세계적인 컴퓨팅, 자율주행 기업인 엔비디아 한국법인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IT 및 AI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5일 유웅준 케이투스 코리아 대표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정선=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 10 06 ()

27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20



도의회 교육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5일 강원체고를 찾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을 격려했다.



도의회 교육위 전국체육대회 도 선수단 격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등 도의원들이 5일 강원체육고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강원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도의회

스포츠서울

2023 10 0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국민의힘(원주1)]는 10월 5일(목),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찾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을 격려했다.

acdck@hanmail.net

12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04

도내 산악사고 40% 가을 행락철 집중 “나홀로 산행 자제”

강원도내 산악사고의 40%는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책이 요구된다.

5일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4166건이다. 이 가운데 40%가 행락철이 시작되는 9월부터 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에 발생한 산악 사고는 지

난해 284건, 2021년 262건, 2020년 199건 등 일년 중 가장 많았다.

박 위원장은 “설악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10월에 산악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익숙한 지형 지물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는 △기상 정보 확인 및 나홀로 산행 자제 △개인의 체력과 당일 컨디션 고려한 등산코스 설정 △일찍 산행을 시작하고 해지

기 전 하산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 △큰 온도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 준비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음주산행 금지 등 산악등반시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설화

춘천MBC

2023 10 05 ()

산악사고 단풍철에 집중.. 안전수칙 지켜야

강원도 산악사고 가운데 40% 정도가

9월과 1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기영 도의원이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발생한 산악사고

4,166건 가운데 9월과 11월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1,690건으로

전체 사고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단풍철인 10월에

956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가장 많은

달로 꼽혔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음주 산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江原日報

2023 10 06 ()

04

단풍에 취해 ‘배끗’ 가을 산악사고 속출

10건 중 4건 9~11월에 집중
올 들어 지난달 이후 164건
부상자 조난·실족 추락 많아

매년 가을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산악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추석 황금 연휴에 이은 한글날 연휴를 맞아 단풍 인파가 본격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며 산악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원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발생한 도내 산악사고는 총 5,229건이다. 이 중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고는 총 2,115건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올해도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164건의 가을철 산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을철 산악사고 유형은 주로 무리한 등산으로 인해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입고 조난을 당하는 경우, 낭떠러지·급경사지 주변에서 실족해 추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섯 등의 임

산물 채취꾼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낮 12시48분께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야산에서 A(62)씨가 산행 중 발을 헛디뎠다. 30m 아래 급경사지로 추락, 좌측 골반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3시간10여분 만에 구조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달 14일 오전 11시29분께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한 야산에서도 B(58)씨가 산행 중 20m 아래로 굴러떨어져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박기영(춘천)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 강원자치도에서 신고가 접수된 산악사고만 40여건에 달할 만큼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단풍이 절정으로 향하면서 산을 찾는 탐방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등산객 또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겸·이현정기자

2023 10 06 ()

江原日報

02

道 지방시대위 2차 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5일 2차 회의를 열고 지방시대계획안과 초광역권발전계획안, 분과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시대계획안은 '새로운 출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자치분권 선도,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육성,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산업벨트 특화산업육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또 초광역권발전계획안의 경우 '초광역협력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과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목표로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초광역경제권 구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융복합 관광허브 구축, 순환경제 혁신을 위한 교통망 확대 및 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특별자치도 간 협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황학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축으로 균형발전분과의 경우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윤재선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권소영 흥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활동한다. 자치분권위원회장은 안동규 (사)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 교육분과위원장은 이영욱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혁신성장분과위원장은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이 맡는다. 최기영기자



◇2023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회의가 5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황학수((사)치안문제연구소 이사장) 위원장과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두원 인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02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회의가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정호

황학수 도지방시대위원장 “윤 정부 지방시대 강원이 완성”

3개 안건 심의, 분과위원장 위촉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황학수)가 5일 지방시대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 확립 및 지방분권 선도방안 등을 모색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신관 대회의실에서 황학수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황학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강원도가 완성해야 한다”며 “강원도는

일등을 지향한다. 전국민이 살기좋은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지방시대 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초광역권발전계획안’,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도 지방시대위는 이날 4개 분과위(자치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균형발전)를 구성, 분과위원장으로 안동규(자치분권)·이영욱(교육개혁)·남우동(혁신성장)·고광만(균형발전)위원을 위촉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20

원제용 도의원 국무총리 표창 원제용(원주) 도의원(자연보호중앙연맹 부총재)은 5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에서 환경보호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江原日報

2023 10 06 ()
27

원제용 도의원, 국무총리 표창 자연보호중앙연맹 부총재로 활동 중인 원제용(국민의힘·원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5일 경북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5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江原日報

2023 10 06 ()
21

영월 노인의 날 기념식 영월군과 군노인회는 5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김길수·윤길로 도의원, 엄기원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영월군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21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이 5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에서 열렸다.

김정호

전국체전 강원선수단 결단식 '선전 기원' 목표 종합 9위

도 47개 종목·선수 1148명 참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오는 10월 1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결단식을 열고 강원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5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4회 전국체전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박관희·이승진 도의원, 신은섭 흥천군체육회장, 황병철 춘

천시체육회 부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남 목포 일원에서 총 49개 종목에 선수 1만9279명, 임원 9198명 등 총 2만844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도에서는 47개 종목에 선수 1148명, 임원 288명 등 총 1436명이 참가하며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잡았다. 도는 지난해 울산 일원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전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양희구 회장은 " 그동안 선수단이 굵은 땀방울을 쏟으며 훈련해 매진해 왔다"며 "우리 도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수들이 본인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고없이 건강하게 훌륭한 성취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준비한 시간이 빛날 수 있도록 강원교육 가족도 함께하겠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이 아이들의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예섭

江原日報

2023 10 06 ()

2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이 5일 강원체육회관에서 선수와 체육회 관계자,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체육인 기량 마음껏 뽐내길”

13일부터 2만8천명 선수 열전
국내 47개 종목 1,436명 참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다.

도체육회는 5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양희구 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김남준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결단식은 선수단 훈련 및 응원 영상시청, 김용주 선수단 총감독(도체육회 사무처장) 출정보고, 단기수여, 양희구 회장 결단식사, 정광열 부지사 격려사, 신경호 도교육감 격려사, 선수대표(세팍타크로 김영만, 체조 이은주) 필승다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희구 회장은 결단식사를 통해 “강원자치도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정광열 부지사는 “이번 전국체육전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자치도의 대표로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3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2만8,477명의 선수단이 4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한 자릿수 등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자치도는 47개 종목에 선수 1,148명, 임원 288명 등 총 1,436명을 파견한다. 권순찬기자 sckwon@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7

철원군·서귀포시, 한탄강서 평화통일 기원

백두산 천지·백록담 물 합수제
양 시·군 여협 등 500여명 참석
내일까지 군민화합 태봉제 진행

우리나라 최북단 철원군민과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시민이 하나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합수제가 5일 철원군 한탄강 승일교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합수제는 우리나라 최남단 한라산 백록담 물(水)과 북한 백두산 천지 물을 채수해 철원군 한탄강에 합수하며 통일을 기원했다. 이번 합수제에 사용된 천지 물은 지난달 철



한탄강 승일교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 합수제에서 참가자들이 물을 합수하고 있다.

원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백두산을 방문해 채수해 왔다.

철원 태봉제의 공식 행사로 열린 제21회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는 주최

기관인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계숙)와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옥화) 회원을 비롯해 이현종 철원군수, 박기준 철원군의장

과 의원,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정문걸 철원교육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5일부터 7일까지 철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41회 태봉제는 군민 화합을 주제로 태봉제례, 태평성세 행복행진, 백세장수 꽃놀이패 대회,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최계숙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태봉국의 수도 철원에서 열리는 합수제는 철원군과 서귀포시 여성들이 평화통일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江原日報

2023 10 06 ()

22

“백두·한라 기운 모아 통일 염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천지·백록담 물 채수
철원 한탄강에 흘려보내

【철원】“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제21회 평화통일기원 합수제가 5일 오전 11시 한탄강 승일공원에서 열렸다.

철원군과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이현종 군수, 박기준 군의장 및 군의원, 김정수·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여성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철원군 자매도시인 서귀포시의 여성단체협의



◇철원군과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는 5일 한탄강 승일공원에서 제21회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를 열었다.

회 회원 10여명도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수한 물을 가지고 철원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2001년 시작된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는 백두산과 한라산의 물을 합수해 한탄강에 흘려보내는 통일 기원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종 군수를 비롯한 철원과 서귀포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백두

산·한라산에서 가져온 물을 합수, 한탄강 승일교 위에서 뿌리며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등의 이벤트도 열렸다.

이현종 군수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시작된 합수제가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남북의 평화통일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라며 “남북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군민들의 의지가 담긴 합수제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41회 태봉제는 이날 오전 태봉제례를 시작으로 백세장수 꽃놀이패 대회, 태평성세 행복행진이 진행됐으며 오후 7시에는 1만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이 진행됐다. 김대호기자

江原日報

2023 10 06 ()

19



◇기린·상남 농산물 유통센터 준공식이 5일 최상기 군수와 이춘만 인제군 의장, 엄윤순 도의원, 함장길 NH농협 인제군지부장, 정종욱 기린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 개소

【인제】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제군은 5일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1-5번지 일원에서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부터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49억원이 투입

된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산물 선별장 및 집하장, 저온저장 시설, 교육장, 사무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또 랩핑기, 테이핑기, 컨베이어벨트, 선별작업대, 삼면포장기 등 선별과 포장을 위한 장비도 갖추고 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5



인제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 준공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이 5일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1의5번지 현지에서 최상기 군수, 이춘만 군의장과 김재규 군의원, 엄윤순 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05 ()

CBS

'특혜 의혹' 속초 대관람차 '위법행위' 적발...전 임 시장 수사 의뢰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핵심요약

행안부 4일 특별감찰 결과 속초시에 통보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 위법 사항 다수 적발
전임 시장, 당시 관광과장 수사의뢰 요구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 우선협상대상자 부당 선정에 이어 다수의 위법행위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드러나 속초시가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5일 '행정안전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밝혔다. 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6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지난 4일 속초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찰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으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됐지만, 관광지 지정구역 밖이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지연 등이 예상되자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021년 4월 속초시의회 강정호, 김명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영래 기자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이 관광지 등의 자연경관과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관람차를 관광지 지정면적 밖까지 침범해 설치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위법하게 허가하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관광테마체험관에는 소매점과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이 주시설인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카페테리아와 소매점 등이 62.2%를 차지하도록 위법하게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관람차(탑승장 포함)는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는 건축법 상 위락시설에 해당돼 자역녹지지역인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위법하게 신고가 수리돼 설치한 것으로 감찰결과 드러났다.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토대로 속초시에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또 다른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특혜를 줘 위법하게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대관람차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행안부 처분 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전임 시장 등 2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위반해 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능 여부와 원상회복 여부 등 위법성 해소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관람차 운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강정호 강원도의원(전 속초시의원)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자격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5월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청구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이후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해 6월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과장과 팀장은 정직 처분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7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6일 오전 10시 철원 김화

읍읍내리충열사에서 열리는 충열사추계제향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0 06 ()

27

◇엄기호강원도의원(철원)



은 7일 오전 11시 철원 남종현 발명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대평 남종현 발명

대상 시상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8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6일 오후 6시 30분 고성군토

성면 봉포리해풍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년 봉포리 죽도 하트썸 축제개회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4



유순옥(비례) 도의원은 6일 오전 10시 동해 두타

산삼화사에서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삼화사수록재 봉행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8



김시성(위
왼쪽)·강
정호(위
오른쪽)·
원미희도

의원은 6일 오후 7시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에서 열리는 시 승격
60주년 기념 시민의
날 행사 및 설악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11



심오섭 도
의회 사회
문화위 부
위원장은
6일 오후 3

시 40분 춘천 송곡대학
교에서 열리는 명사 초
청 강연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0 06 ()

27

◇박대현 강원도의원(화천)은
6일 오후 6시 상
서 생활체육공원
에서 열리는 칠성
페스티벌 드림콘
서트에 참석.



江原日報

2023 10 06 ()

27

강원학 아카데미 강연

◇심오섭 강원도의회 사회문
화위원회 부위원
장(강릉)은 6일
오후 3시 40분 송
곡대에서 열리
는 강원학 아카
데미 명사 초청 강연자로 특강.



2023 10 06 ()

江原日報

04

신 교육감 지지 단체에 민간보조금 줬다 뒤늦게 환수

도교육청 논란 일자 조치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5일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단체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단체가 참여한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사업은 분단 유산을 활용한 현장 체험활동, 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다양한 통일기원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해

당 사업을 공고하면서 사업 신청 자격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했다. A단체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인 신경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SNS 등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A단체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지난 4일 A단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자체 심의해 결국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수액은 약 3,000만원 규모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江原日報

2023 10 06 ()

04

도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오늘 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6일 오후3시 도교육청에서 ‘2023년 1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한다.

양 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할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 6월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했으며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관한 협약사항’, ‘학교장의 사무분장 권한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사항’, ‘인사 정책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사항’ 등 5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원선영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01

강원도내 대학생 해마다 수천명씩 떠난다

올해 도내 9곳 중도탈락 5142명
춘천교대 경우 6년 동안 5배
입학 후 재수·반수 수도권 대학행
신입생 모집 난항 속 고심 가중

강원도내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도내 대학 입장에서 힘들게 신입생을 모아와도 결국 대학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본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중도탈락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4년제 대학 9곳의 2023년 중도탈락률은 5.67%로 확인됐다. 9개 대학에 등록된 총 9만 716명의 재학생 가운데 자퇴, 미복학 등으로 대학을 떠난 학생은 5142명에 달했다.

도내 9개 대학의 중도탈락률은 매년 상승 중이다. 지난 2021년 도내 9개 대학이 기록한 중도탈락률은 5%였다. 지난해는 5.36% (5059명)로 0.36%p 상승했고, 올해는 5.67% (5142명)를 기록하며 재차 올랐다. 이는 수도권 대학의 평균 중도탈락률 (2022년 3.8%)과 비교해 1.5%p 이상 높은 수치다. 3년 사이 도내 대학 재학생은 9만 7825명에서 9만 716명으로 7000명 넘게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중도탈락 학생은 4892명에서 5142명으로 250명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학생들이 매년 수천명씩 도내 대학을 떠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중도탈락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중도탈락률이 0.7% (10명)에 불과했던 춘천교대는 지난해 2.23% (30명)의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올해는 3.91% (52명)를 기록하며 대학을 떠나는 숫자가 6년 사이 5배 이상 늘었다. 경동대

도내 일부 대학 3년간 중도탈락률 변화



(양주캠퍼스 제외)·상지대·한라대도 3년간 중도탈락률이 계속 오르는 중이며 가톨릭관동대와 강릉원주대도 전년 대비 중도탈락률이 상승했다. 도내 대학 가운데 낮은 중도탈락률을 보이는 강원대와 연세대 미래, 한림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7%를 기록하며 전년 (6.1%) 대비 중도탈락률이 하락한 강원대는 지난해 춘천캠퍼스에서 만 1244명이 이탈했고, 연세대 미래도 지난해 (292명)보다 93명 늘 385명 (4.06%)이 대학을 떠났다. 한림대도 매년 400명 넘는 인원이 이탈 중이다.

이 같은 지방대학의 위기의식은 앞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추진 중인 1도1국립대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두 대학은 양 대학의 재학생 중도탈락·신입생 충원 등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1도1국립대 추진 필요성 가운데 하나로 밝히기도 했다.

도내한 대학 관계자는 "일단 지방대학에 입학한 뒤 재수나 반수를 통해 수도권 대학 진학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자퇴를 하고 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보통 대학 내 우수자원일 경우가 많아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뺏기는 데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02

강원도 '5년간 25조원 투입' 초광역권 발전 전략 구축

산업·관광·공간·제도개선
미래산업 육성 목표 4대 분야
정부 최종 종합계획 연발 발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광역지자체간 초광역발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전북, 전남, 경북 등 타 광역시·도와 초광역권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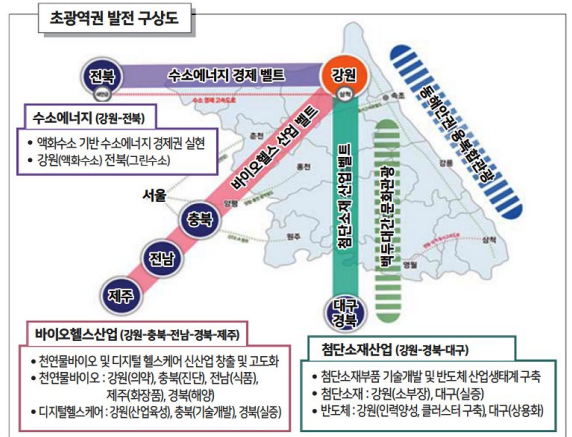
초광역발전 계획으로 묶이는 강원 등 7개 광역시·도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24조 7765억원을 투입, 그린수소 에너지와 천연물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먹거리를 공동 모색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안

은 5일 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됐다.

초광역권발전 계획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발족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시·도별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종합·심의해, 올해 말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최종 발표하게 된다. 이와 연계, 강원특별자치도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산업·관광·공간·제도개선)을 수립했다. 산업 분야는 탄소중립 초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그린수소에너지를 비롯해 천연물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첨단소재·부품산업 △메타버스 산업 등을 6개 시·도(전라북도·제주도·경상북도·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대구광역시)와 협력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선 강호축 중심 백두대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동해안권 체류형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등이 추진된다. 각 세부 사업은 △백두대간권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국비 554억원) △백두대간아리랑벨트 구축(국비 500억원) △백두대간 캠핑관광(국비 40억·지방비 60억) △7번 국도 블루로드 구축(총 투자액 8226억원) △동해안권 생활관광 기반구축 △환동해권 연계 철도망 구축(울산·포항·삼척·국비 6조 5508억원) 등이다. 경북·경남과 전북·전남, 충북, 울산시가 참여한다. 공간 분야는 광역권 철도·도로망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네트워크가 목표로, 각 사업은 △동서6축 간선도로 건설·고속도로 40호선(제천~삼척) △친환경 트레일조성(총사업비 144억원) △용문~흥천 광역철도(“ 8537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추정 1조 1703억원) △제2경춘국도(1조 2862억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철도·



도로망은 강원과 경기, 호서·호남·영남 지역을 연결한다. 특히 특별자치도(강원·전라·제주)간 환경·산림·농업 규제 개선을 비롯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해외 우수산업 인력 유치 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눈에 띈다. 도 관계자는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2027년 연간 관광객 1억 8050만명, 신규 일자리 12만 7900개, 1인당 지역총생산 4057만원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초광역권발전 계획안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덕형

2023 10 06 ()

江原日報

05

플라이강원에 20억원 지급 양양군 하루만에 속전속결

‘부당 지원 의혹’ 의문투성이

속보=플라이강원이 정상적인 경영 마지막 날 20억원 지급(본보 9월 25일자 1면 등 보도)을 양양군에 요청하고, 군은 관련 부서를 동원해 이를 뒷받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은 경영 악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교육책이며 ‘20억원 지원과 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해명을 해 왔지만, 이 같은 주장을 무색게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양양군이 평소 같으면 행정 처리에 수일이 걸릴 절차를 ‘하루’ 만에 마무리하고 플라이강원의 통장에 20억원을 입금한 날인 ‘2023년 5월15일’은 재정공시 의무 기업인 플라이강원에게는 사실상 정

양양군은 5월15일 그동안 ‘위법’ 논란이 있던 이전 협약을 폐기하고 김진하 군수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명의의 협약을 다시 체결한 데 이어 3개 부서에서 5~6단계의 행정절차를 수시간 만에 마무리 짓고 은행 업무 마감 2분 전인 5시58분에 가가스로 20억원 입금을 마쳤다.

이날 이뤄진 행정절차만 군수 명의의 수정협약 체결→감사부서에 대한 일상감사 요청→감사 승인→재무부서 지급 결의→지급 명령→군 금고 입금까지 사업, 감사, 재무 등 3개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상감사 과정 1개만 보더라도 수일, 최대 7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당시 이뤄진 행태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특

별한 사정이
나 지시가 있
는 경우라야
가능한 행태
로 봐야 한
다”고 했다.

박봉균 양
양군의원은
“지방의원이

업체 사실상 정상 운영 마지막날 군에 지원 요청
‘수정협약 체결 → 감사 승인 → 지급 명령 → 입금’
3개 부서 5~6단계 행정 절차 수시간만에 마무리
군 “분기보고서 시한 알지 못해 ... 절차대로 지급”

상적인 회사 운영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은 플라이강원을 비롯한 재정공시 의무기업들이 1·4분기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마감시한이었으며, 회사는 이를 어겼다.

업계에서는 재정공시 기업이 마감 시한까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에 들어갈 정도로 제재가 엄격하다.

결국 플라이강원이 정상기업으로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2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양양군은 이를 의심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적극 협조했다.

이미 수개월 전 이뤄진 2022년 사업보고서에서도 회계법인은 부채와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플라이강원에 대해 ‘계속기업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염불이었다.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지원을 만류했지만, 재정 보고 마지막 날 하루 만에 지원을 마무리해 결국 20억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양군의 태도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외면한 플라이강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등 크게 대조적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플라이강원, 먹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플라이강원은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심지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한 당일 아침까지도 예약금을 받아 뺑뺑이”며 “악질적인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5월15일이 업체의 분기보고서 마감 시한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당시 행정절차대로 지급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했다.

류재일·김준경기자

2023 10 06 ()

江原日報

05

춘천 '마리나 사업' 허위서류로 선정 정황... 수사 확대

잔액증명서 위조 제출 혐의
경찰 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공무원 인지여부 조사 방침

속보=춘천시 '마리나 조성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7월10일자 5면 보도)이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가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허위 서

류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업무방해)를 확인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해당 업체는 자본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수백억원대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최근 관련 조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이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위조 서류 제출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몰랐더라도 '부실 검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지자체 개발사업 신뢰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한 주민의 고발로 시작됐다. 마리나 사업은 삼천동 의암호 수변 7만㎡ 부지에 2027년까지 숙박시설, 컨벤션, 에코 정원 등을 조성하는 4,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이다.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됐지만 수차례 실시협약(MOA)이 무산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04



양양군은 5일 손양면 송현리 현지에서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양양 남대천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본격화

기공식 개최 내년 말 준공 목표

관찰시설·연구관리동 등 설치

양양군은 5일 손양면 송현리 현지에서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총 2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만 8152㎡의 부지에 길이 500m, 폭 2.3~4m, 수심 0.65m의 인공수로와 함께 연어 관찰시설과 산책로, 야외쉼터, 연구관리동 등이 설치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진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과 노력으로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에서 자연산란장의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연어 자연산란장이 연어의 여정에 따뜻한 고향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오세만 군의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황선재 국립수산물과학원 동해연구소장, 이춘우 한국수산물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훈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 19

영동지역 인구 유출 심상치 않다

-신산업 성장동력 육성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2년 동안 7000명대의 인구 순유입을 기록한 강원지역이 올해 들어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은 물론 강릉과 동해,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의 인구 유출도 본격화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구는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산업의 쇠퇴는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다시 상경기 위축을 불러와 순환이 반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의 주민 감소는 이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한다면 강원도의 도세도 악화할 것입니다. 지역 공동화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증감 추이는 영동과 영서지역 주요 도시가 대조를 보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8월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의 관련 지표를 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과 원주는 이 기간 각각 829명, 788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릉은 566명 순유출됐습니다. 강릉은 지난해(-278명)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은 강릉뿐 아니라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합니다. 같은 기간 속초 272명, 동해 229명, 삼척 130명 등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2021년(-12명), 2022년(-63명)에 이어 올해는 세 자릿수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영동지역 인구 감소는 수산업 쇠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길 수만은 없습니다. 동해안벨트를 따라 연쇄적인 지역 공동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세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들 지역은 바다 관광지로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늘어 지역 상경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만으로 도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젊은 이들이 거주할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영동권의 미래 주력산업인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동해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06 ()

/ 19

언제까지 에너지 공급처 머물텐가

-동해안 화력에 홍천 수력... 자원 수탈 방식 폐기돼야

강원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처로 전략하고, 지역자원에 대한 활용권이 주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처가 됐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화력발전소가 동과 송출 관련해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늘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마전 홍천에 수력발전 시설을 건설키로 하면서 현지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과거 한때 거론됐다가 무산된 것을 9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격 고시하면서 정부와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천양수발전소 면적은 화촌면 풍천리 일원 무려 153만여㎡에 달합니다. 건설 규모는 300MW 2기로 2032년 가동 목표로 26년 착공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공사기간 특별지원금과 완공 이후 매년 기금을 홍천군에 제공해 주민사업과 지역발전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지주민 태도는 완강합니다. 5년 전에도 주민들과 상의 없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다가 홍천군에서 여러번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사안이 터지자 더 격앙돼 있습니다.

오늘(10월 6일) 반대위와 홍천군농민회 등은 홍천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10월 4일에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주민 자립경제 열망이 큰데 안정적인 생활 보장책과 지속적인 거주를 돕는 산업대책은 나오지 않고 그동안 반대해 온 발전소가 가시화되자 주민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비칩니다.

비단 홍천만이 아니라 강원지역은 국가적 에너지 제공처 기능이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석탄산업이 60, 70년대 산업화 동력 공급원이 된 것에 이어 요즘은 서울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전기 공급처가 됐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 송출을 위한 송전탑이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 거미줄처럼 급증한 것을 실감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한 보람 없이도 민 삶의 형편은 전국 하위로 박탈감이 심합니다.

물자원을 점유해 이익을 내는 대표 공기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물을 시민 세금으로 사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물자원 보존을 위해 여러 규제를 감당하며 손실을 봅니다. 일회적 기금은 주민 삶의 질 보장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민이 희생하는 수자원과 에너지 개발 방식이 더 이상 통용돼선 안 됩니다. 지역자원 활용은 현지 주민이 주도하는 추진 방식이어야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수탈과 착취라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 10 06 ()

/ 25

강원자치도의 경제 밝히는 ‘강원이코노믹서밋’

강원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23 강원이코노믹서밋’이 5일 정선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경제미래비전’을 대주제로 막을 올렸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경제인들의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도내 경제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한층 강화하는 교류의 무대로 치러졌다. 또 원주 나노인텍쥬이 일자리창출상, 황성 에스제이테크와 춘천 ㈜메디가 창업·연구개발상, 황성 쥬서울에프엔비와 정선 쥬하이원베이커리가 ESG경영상을 각각 수상했다. 건설혁신상은 원주 동진건설쥬, 특별상은 홍천 쥬샌드로블록과 쥬크린산업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강원경제인의 표상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는 기업인들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우려했던 빨간불이 사방에서 켜지고 있다. 수출 부진과 영업이익 축소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하락하던 국제유가는 다시 뛰고 미국은 긴축의 고삐를 쥐고 있다. 세계 경제가 최소한 내년까지 침체될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유가의 급등 속에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초래가 예상되는 이유다.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우리 경제에는 암울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 강원경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다. 힘을 합쳐 대비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강원이코노믹서밋이 더욱 뜻깊고 반가운 이유다.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도 도내 기업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밑알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 묵묵히 주어진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은 강원자치도의 힘이다. 도내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강원경제는 한계를 이겨내고 도약할 수 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결코 이뤄내지 못할 것은 없다. 강원자치도 출범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지역 경제인들이 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강원경제를 활기차게 이끌어 간다면 앞으로 강원자치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江原日報

2023 10 06 ()

/ 25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 사무인 접경수역의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1척에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 어업지도선 80척 중 30척(38%)이 20년 이상 지나 내구연한이 임박했으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신규 선박 건조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87톤급 어업지도선 강원202호와 69톤급 강원203호 어업지도선 2대를 운용 중이다. 총 3대의 어업지도선을 운용해 왔으나 1992년 건조한 강원201호가 선박 노후로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폐선했다. 남북이 맞닿은 강원 동

해의 특성상 1대는 접경수역 월선 및 피랍 예방 등 어업 안전관리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1대가 드넓은 강원지역 해상 안전관리를 도맡고 있다.

국가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할 때는 예산까지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03년 이전에는 전국 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8년 법 개정으로 지금은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사무를 자치단체가 대신 맡아 이행할 경우 그 사무의 바탕이라 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사무는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 특히 접경수역 안전관리에 필수적 수단인 어업지도선 운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자치단체 재정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접경수역의 관리에 손 놓고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문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존

재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는 4대 의무도 이런 믿음 위에서 이뤄진다. 이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변할 수 없다. 접경수역의 안

국가 사무인 접경수역 안전관리 큰 역할

1척에 수백억 소요, 지자체 재정으로는 한계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동안 국가 사무를 자치단체가 대신 이행할 때마다 예산은 물론 절차와 과정을 두고 수년간 쟁점이 돼 왔지만 그 근저에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 중앙과 지방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등 관료적 갈등 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로 넘긴 사무는 이양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관계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접경수역의 안전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 부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